

‘정부 평가 전국 첫 2관왕’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주간 증시 전망

코스닥 -4.37% 급락 연중 최저치 기록
미국 FOMC·일본 추가 수출규제 주목
반도체 및 소재·자동차 등 대형주 유리

국내 주식시장 거래가 위축되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전주대비 -1.34% 하락하며 2066.26까지 떨어졌고, 코스닥지수는 지난주에만 -4.37% 급락하며 644.59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은 6월 말 두 정상 간 협상재개 선언에도 한 달여간 실무회담이 지연됐고, 7월 초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정책에 더해 투자심리는 더욱 위축됐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난 24일 한국 화이트리스트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결과, 약 3만 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90% 이상이 제외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100여개 기업이 반대의사를 보였지만, 여문에 주목을 받지 못했다. 사실상 이번 주에 일본 각에서 결정된다면 21일이 경과되는 8월 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870여 건의 품목이 해당된다. 하지만 화이트리스트는 일본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출확대를 위해 시행된 제도로 일본정부가 모든 품목에 의도적으로 수출지연을 하거나 수출 규제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핵심소재 산업에 국한된 수출규제로 ‘한국 길들이기’를 위한 정치적 용도로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수출 절차 지연 가능성으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자 및 세부 화학제품, 전기전자부품 등 향후 어떠한 파급효과가 나타날지 예상이 어려워 막연한 불안감이 시장에 더욱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7월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모처럼 외국인 2조49억원의 순매수가 이어졌다.

하지만 반도체업종을 중심으로 전기전자업종을 2조2988억원 순매수 했고, 이중 삼성전자 1조4000억원과 SK하이닉스 5850억원을 순매수 했다. 코스닥시장에서 3000억원 넘게 순매도했으며 사실상 7월 한달 동안 외국인 순매수 추세를 SK하이닉스만큼 제한적으로 순매수했다.

8월에는 7월보다 외국인 순매수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지난 5월에 외국인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4667억원과 코스닥시장에서 5683억원을 순매도하며 국내 주식시장에 큰 부담을 줬다.

지난해 9월에 MSCI 이미정지수내 중국 A주 편입비중을 5월, 8월, 10월에 각각 5%씩 비중을 확대하기로 발표하고, 5월에 이어 8월에도 중국 A주 비중을 5% 추가 확대가 예정돼 있다. 중국 비중 확대에 따라 국내 비중은 감소하게 되므로 외국인 수급악화 가능성을 염두에 뒀어야 한다.

이번 주 30일과 31일에 미-중 대면 무역협상과 미국 연준의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한국시각 기준 8월1일 새벽)가 예정돼 있다. 미국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됐고, 금리 인하 폭과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최근 국내증시는 해외호재에 담긴 채 국내외 약재와 수급에 높은 영향을 받고 있다. 국내지수가 글로벌시장 대비 현저하게 낮은 상황에서 미-중 무역협상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약재 이후 외국인 수급방향에 따라 향후 지수 저점 확인 및 반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분기 실적 향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실적 발표가 본격화되고 있다. 실적발표 일정에 관심이 필요하며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반도체 및 소재, 자동차, 증권주의 저점 분할매수 관점에서 대응이 바람직해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경영혁신·현장밀착 기업지원 시스템이 비결”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전국 1위… 해외비즈니스센터 특화 “지역 기술혁신·일자리 창출 저점기관 역할 최선 다할 것”

전남테크노파크가 전국 최초로 정부 성과 평가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1997년 12월 우리나라 테크노파크가 출범한 지 21년 만에 이른 쾌거다. 경영·사업 부문 동시 석권은 전남테크노파크가 처음이자 유일하다. 비결은 뭘까?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지난 26일 광주주요부와 인터뷰에서 ‘고강도 경영혁신 추진’과 ‘지역 혁신기관들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유 원장은 조직 진단과 함께 전 직원이 참여하는 경영혁신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위해 경영혁신 토론회, 부정부패근절과 클린직장 만들기 운동, 지역산업 증가기 100대 과제 발굴 등을 추진했다. 또 핵심 추진 전략과 발전계획 재정립, 대대적 조직 개편을 통한 효율화 등도 꾀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전남도와 전남지역산업평가단이 참여한 전남반을 구성, 지역산업육성사업 평가분석를 데이터 기반으로 전면 재정비한 것이 주요성과라고 자평했다.

유 원장은 “테크노파크의 존재 이유는 지역산업정책을 기획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있다”며 “전남테크노파크의 체계적이고 협력적이며 현장밀착 맞춤형 기업지원 시스템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역임한 광주테크노파크 원장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윤부즈만 경험이 지역산업의 애로를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전남테크노파크는 내년 전남도 지역산업육성사업 예산으로 올해(172억원)보다 76억원을 더 늘어난 총 248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정부 핵심 시책인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서도 독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스마트공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전환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으로 기업 생산활동 기획·설계·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을 사물인터넷·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최소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지능형 공장이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올해 70개 사를 비롯해 2022년까지 1300개사를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 지원 50%에다가 추가로 전남도가 30%를 지원한다. 기업은 20%만 부담하면 스마트공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이같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전남은 목표 70개사의 2배가 넘는 152개사의 신청을 받아 달성률 217%로, 전국 1위다. 올해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한 전남테크노파크는 이월부터 내년 수요기업 발굴을 위한 사전진단·컨설팅 등을 진행,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유 원장의 특화된 기업지원 정책도 눈에 띈다. 지역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한 해외비즈니스센터다.



유동국 원장

아시아 베이징·싱가포르, 미국 뉴욕, 유럽 런던, 오세아니아 시드니 등 5개 대륙, 26개국, 34개 도시에서 해외비즈니스센터 44곳을 개설했다. 에너지도시인 미얀마 양곤에는 나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신산업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싱가포르의 첨단운송기기 및 의료 바이오 소재산업 기업들의 수출 촉진을 위한 해외비즈니스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얀마와 싱가포르의 정부와의

“소통으로 시너지를”

금호고속, 전략경영 워크숍

금호고속은 최근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임원과 팀장, 전국 권역장 등 4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하반기 전략경영 워크숍(사진)’을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기업의 경영현안을 재점검하고, 영업력 강화, 노사 상생 문화 조성, 창의적 조직문화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자유 토론회를 진행한 뒤 주제별 실행 방안을 도출했다. /박정옥 기자 jwpark@kwangju.co.kr



2019년 하반기 전략경영워크숍



위니아딤채, 탄수화물 최대 39% 낮춰주는 압력밥솥 출시

위니아딤채는 당질(탄수화물) 성분을 크게 낮춰주는 압력밥솥 ‘딤채국 당질저감 30’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IH(인덕션하팅) 방식의 신제품은 ‘당질저감 취사알고리즘’과 ‘트레이 필터링 구조’ 등을 적용해 밥에 포함된 당질 성분을 일반 밥솥으로 지는 밥보다 최대 39% 낮춰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일본과 중국 등에서 당질을 낮추는 일반 밥솥

이 출시된 적은 있으나 당질 저감과 건강 조리, IH 압력 기술을 활용한 복합 제품은 위니아딤채가 세계에서 처음이다. 당도·비만으로 인해 당질 관리 또는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출 내부에 전용 트레이를 추가해 취사 과정에서 당질 성분이 자연스럽게 녹아내리도록 하고, 전용 알고리즘을 통해 당질이 빠진 쌀만 가열해 밥을 짓는 방식이다. 당질 저감 메뉴는 백미 3종, 잡곡 3종으로 총 6종이다.

또 기호에 따라 선택 가능한 5단계의 ‘속편한 죽&밥’과 6종의 건강맛죽 등 총 63종의 메뉴로 소비자의 폭넓은 건강식 선택이 가능하다.

‘딤채국 당질저감 30’은 IH 압력 10인용 제품이며, 당질 저감 기능으로는 6인용까지 취사가 가능하다. 가격은 출하가를 기준으로 80만 원이다. /박정옥 기자 jwpark@kwangju.co.kr

Table with legal notices and real estate auction information, including columns for auction number, item details, price, and contact information.